

웃둥 보살 빛둥 거사 <35>

구성 : 김흥민



나무통에게 화낸 어리석은 사람 <백유경(百喻經)>



길을 가다 목마른 한 나그네가 나무통에 흐르는 맑은 물을 보고 실컷 마신 후 나무통을 보고 말했다. "나는 실컷 마셨으니 물아, 다시 나오지 말라." 그러나 물이 계속 흐르자 그는 화를 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어 지혜가 없구나. 왜 네가 떠나지 않고 물을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며 그를 다른 곳으로 끌고다 놔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생사의 애욕 때문에 다섯 가지 쾌락의 잔물을 마시다가 쾌락에 염증이 생기면 저 물을 실컷 마신 사람처럼 말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한다. "왜 구태여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만이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 하는가. 네가 그것을 떠나려고 하거든 너의 여섯 가지 정(情)을 거두고, 마음을 닦아 망상을 내지 않으면 해탈을 얻을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승찬 스님이 법을 구하다 승찬구법(僧璨求法)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 선종의 3대조사 승찬 스님이 혜가 스님에게 불법을 구하는 장면이다. 승찬(僧璨) 스님은 허베이성(河北省)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출신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몽둥병을 심하게 앓았다고 전해지는데, 병이 나은 뒤에도 머리 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아 적두찬(赤頭禪)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고에 시달리던 승찬은 북제(北齊, 550-577) 말기에 중국 선종(禪宗)의 제2대조사(祖師)인 혜가(慧可, 487-593)를 찾아가 불법을 구했다. 혜가와 의문에서 깨달음을 얻은 승찬은 출가해 승려가 됐고, 보배처럼 빛난다는 뜻에서 '찬(璨)'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몇 년 뒤 혜가로부터 의발(衣鉢)을 전해 받아 선종의 제3대 조사가 됐다. 도신(道信, 580-651)에게 의발을 전한 뒤 600년(開皇 20년) 무렵부터는 광둥성(廣東省)의 나부산(羅浮山)에 은거했다. 그 뒤 다시 환공산(皖公山)의 산곡사(山谷寺)로 돌아와 불법(佛法)을 전하다가, 수(隋) 양제(楊帝, 재위 604-618) 때인 606년(大業 2년) 10월 5일에 나무 아래에서 합장한 채 서서 입적(入寂)했다고 전해진다. 772년(大曆 7년)에 승찬(僧璨)은 당(唐)의 대종(代宗)에게 감지선사(鑑智禪師)라는 시호(諡號)를 받았으며, 산곡사(山谷寺)에는 그를 기리는 각적탑(覺寂塔)이 세워졌다. 승찬 스님은 146구(句) 584자(字)로 된 <신심명(信心銘)>을 지었는데, 사언절구(四言絕句)의 시문(詩文)으로 73개의 대구(對句)로 구성된 이 글은 선(禪)의 요체



고려판의 불교판화 <신심명(信心銘)> 중 승찬 스님 구법(僧璨求法) 장면 (1673년판, 민락(年曆) 272x180mm)

(要諦)가 잘 나타나 있어서 중국에 불법이 전래된 이후 나타난 '최고의 문자(文字)'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심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무란(至道無難)이요 유렴간택(唯謙挾擇)이니 단막중애(但莫憎愛)하면 통연명백(洞然明白)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고, 오직 간택함을 깨릴 뿐이니, 더위하고 사랑하지만 앓는다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지극한 도(道)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으므로 오직 간택(挾擇)하지 않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지극한 도는 푹 트여 명백하다. 불법을 바로 알려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이상의 네 구절이 바로 <신심명>의 골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교편화비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가람비 몇 줄기 지나갔을 뿐인데	있다.
밀동도 채 적지 못하고 스쳐갔을 뿐인데	허망타, 한 철 수행이 이렇게 무너지더니.
나무는 가지 끝이 잔뜩 부풀었다.	도 한 차례의 수련거림이 누이에 자욱이 번져가겠다.
그 탕탕함 어찌지 못하고 진저리를 치고	-윤효/시집 <햇살방석>에서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6주(24시간)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특기 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면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초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에 최면 시술사 완성, 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명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을 받으려면 유마로 가라" 할 만큼 유마 최면 연구소의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였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역경매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 수련기간: 20회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때, 쉼을 넘나 드십시오!

초판인쇄 한정수량판매!! 100분께 평일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x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최초규정된 개인지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불었는지 어느 조성이 불이 났는지 물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덩이 없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 공개! 80년간 일선현으로 영안에 축복 알 수 있게 조사를 확실하게 알려! 신권판/정판본/567쪽/정가 120,000원 ** 百超律歷學堂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